

5 월 소식

받은편지함



Andrew Park <tcbc.park@gmail.com>

오후 9:22
(5 분 전)

나에게

5 월 소식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가길 소원합니다. 선교회 식구들 그동안 평안 하셨지요? 이 곳은 요즘 대우기를 맞이하여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2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4 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했다는 비는 한 달 가까이 우중충한 날씨를 이어 가고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우기에 접어들기 직전, 학교 진입로 가까이 정부에서 길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흙더미들을 1km 정도 나열해 놓았는데 비에 엉겨 진흙물로 흐르다 마르다를 반복하면서 비포장 좁은 도로는 딱가래가 되었지요. 게다가 오렌지를 싫은 무거운 차들이 진흙탕에 빠져 밤새 묵었다 또 빠져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통행도 막히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도로의 모양새는 사라져 가고 비가 들이 칠 때마다 학교의 식료품 조달을 염려하게 된답니다. 언제나 정리가 될지 정부도 우기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나누며, 5 월 선교지 소식 전합니다.

I. 탕가신학교 소식

탕가신학교는 5 월 1 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2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1 학년 28 명, 2 학년 27 명, 3 학년 17 명이 등록하여 총 72 명이 재학중입니다.

(1) 장학금 수여

지난 5 월 23 일 목요일, 첫 학기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 성적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생은 2 개의 영역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첫째는, 영어 우수자입니다. 초, 중, 상급반으로 나눈 각 반에서 1, 2, 3 등을 뽑아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는 일반성적 우수자입니다. 각 학년마다 1~3 등을 뽑아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주는 용기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미화 약 3 백불을 사용했습니다. 장학금은 서울 노량진의 "신성장로교회장학회" 후원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학비 지원금

1) 열두제자선교회

한국 경상북도 상주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께서 하나가 되어 '열두제자선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진 신학교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 탕가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27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번 고국방문 때에 상주를 방문해서 후원회 담당 자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2) 정재연 권사님 후원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한국 지부 공동 이사장이신 정재연 권사님께서도 15 명의 학생들을 후원하시기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3) 또 다른이들의 7명 후원.

탕가신학교 전교생이 72 명인데 그중에서 약 49 명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비를 후원받으며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탕가 신학교는 내년부터 현지교단에 이양되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뒤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신학교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이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3) 야회집회

탕가신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주관하는 야외전도 집회가 다음 달 6월에 있습니다. 올해는 1 학년 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위의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로 협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II. 리빙 스톤 학교소식

(1) 제 1 회 고등학교 졸업식.

지난 주 토요일(5월 18일)에 리빙 스톤 과학고등학교 20 명의 학생들이 제 1 회 졸업식을 갖고 모두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졸업식에 앞서 시험이 끝난 다음 날, 탕가의 조그마한 호텔(깨끗한 식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에서 졸업파티를 하면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며 함께 깊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소년에서 남성으로 자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인생을 배우게 될텐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눈 마지막 밤이 앞으로도 계속 남에게 복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학생들에게 의미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대학 입학에 위하여 치른 국가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진학하게 될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가 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Clever Tumaini Yohana 최고성적우수자에게 졸업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학생의 대학 지원과 국제영어공인시험 후원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서울 노량진, "신성장로교회장학회"의 후원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중학교 4 학년들 모의고사.

지금 4 학년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일정 비율 국가시험 결과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교사, 학생 모두 긴장하며 신경을 써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학기 일정이 6월 8일로 모두 끝납니다. 약 1개월 방학기간을 가진 후 7월 8일 2번째 학기가 시작 됩니다. 1주일 후에 시작될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교사 학비 지원

리빙 스톤 교사 가운데 2명을 선정하여 **postgraduate degree course** 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교사 모두 우리 학교에서 교사로 섬긴지 4년이 되었습니다. **Jesca Challe** 스와힐리 선생님과 **Jovinius Daudi Kalekezi** 생물선생님입니다.

III. 건축

리빙스톤 학교내에서 진행되고있는 건축(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 선교센터)은 우기로 인하여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교회에서 무혜자군의 한 시골 교회 건축을 후원하여 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기로 인하여 건축은 6월 중에 기초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IV. 박선교사 노동허가 신청.

타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이 항상 마음줄이며 신경쓰는 일이 있는데 노동허가와 비자 연장입니다.

박선교사 역시 7월 24일이 노동허가 및 비자 종료일이라 노동허가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작금의 탄자니아 외국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속히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체류 비자는 노동허가증이 발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에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순조로운 일처리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V. 박선교사 내외 6월 일정.

6월 방학 기간에 타지역에서 완공된 교회의 헌당예배를 위해 먼 길을 떠날 계획입니다. 리빙스톤 학교에서 왕복 수천 km 거리에 있는 Mbeya(음베야)라는 지역과 Sumbawanga(숨바왕가)라는 지역입니다. 6월 17~27일까지 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곳 교회 모두 예수님께서 황치훈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먼 거리 은혜의 시간 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VI.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리빙스톤 학교 첫 학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 탕가 신학교 학생들의 영적 담대함을 위하여.
3. 이슬람 교도들의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4. 선교사님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5. 박선교사의 노동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선교회 위에 넘치시길 축복 합니다.

2019년 5월 26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